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임원수련회 가져

한성연 사업계획 등 총회 시 제시된 안건 논의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홍사진 목사) 임원수련회가 지난 7월 6~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로투로아 일원에서 진행됐다. 본 교단을 비롯한 기성과 나성 3개 교단 임원진들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을 통한 충전과 정기총회 시 결의된 안건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 시 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는 “이번 수련회는 성결이라는 동일한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고, 하나됨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각 교단이 가진 고유한 사명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김과 연합의 비전을 함께 품는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매우 귀한 사역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뉴질랜드의 타우포 호수, 후카 폭포, 마오리 민속마을, 원주민 교회 등을 방문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기간 중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는 정기총회 시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오는 8월 15일 신집교회(이기용 목사)에서 열리는 ‘한성연 청년연합 집회’는 청년들이 집회에 전념하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고 대표회장 홍사진 목사가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기로 했다.

회장단은 어려운 환경 속의 작은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레노베이션 사업은 오는 10월 14일 진행하기로 하고, 대상 교회와 행사 내용은 주관 교단인 본 교단에서 확정하여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성연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사업은 2022년 나성 제주회당교회(한재구 목사)를 시작으로, 2023년 예성 수암교회(차광명 목사), 2024년 기성 상산교회(정진국 목사), 나성 동부산교회(박성우 목사)에서 총 4차례 진행되었다.

회장단은 또 한성연 사회복지세미나를 대신해 올해는 ‘신학세미나’를 열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진행은 총무단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수련회 기간 중 드린 수요예배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는 “세 교단이 서로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두워진 세상에 성결의 복음을 힘써 전하자”고 강조했다.

나성감독 최형영 목사는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각 교단의 총무들이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기성 총회장 안성우 목사의 권면과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증경총회장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윤기순 목사 선출

“사명과 본분 잊지 말고 헌신의 삶 살 것”

전 총회장들의 모임인 증경총회장회(회장 윤기순 목사)가 지난 9월 성결대학교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임회장으로 윤기순 목사가 선임됐으며, 증경총회장회 총무는 김만수 목사가 선출됐다.

이날 윤기순 목사는 “교단 원로들의 지혜와 경륜을 총회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자”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목사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말고 헌신의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회장 나세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노희석 목사의 기도 후, 조병창 목사가 ‘기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주님의

요구에 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고 당부하고 “사랑 안에 서 늘 화합하며 살아가자”고 설교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성결대학교 총장 정희석 장로는 “성결인으로서 교단을 위해 애쓰시고 중책을 맡아 섬겨 오심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교단이 더욱 더 성결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증경총회장회에서는 그동안 소환했던 모임과 행사들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로 하고 회장과 총무에게 후속 조치들을 일임했다.

한성연 성결교단 학생들, ‘해외에서 구슬땀’

3개 대학 연합해 몽골서 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 펼쳐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은 서울신학대학교, 나사렛대학교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5박 6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와 태를지 국립공원 일대에서 ‘한성연 연합대학 해외봉사’ 활동을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소속 3개 대학이 함께 기획해 총 43명의 학생 및 인솔자가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나눔과 섬김의 인정과 영성 함양’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봉사활동은 울란바토르 시내에 위치한 국제아동센터 산하 ‘크리스티아나 노벨 고아원’과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이뤄졌다.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음악교육을 맡아 악기 연주와 음악 놀

이를 통해 아동들과 교감했으며, 성결대학교는 체육교육, 나사렛대학교는 미술교육을 담당해 협업을 이뤘다.

또한 대학별로 부채춤, 태권도 시범, K-pop 공연 등을 준비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문화교류시간도 가졌다. 울란바토르 인근 태를지 국립공원의 유목민 마을도 방문해 환경정화 활동 및 유목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몽골 해외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문화 간 소통과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도 “낯선 땅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더 깊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왕하 6:16)

성결대 영화영상학과, 단편영화 ‘체화’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세계 3대 장르영화제 진출… 창의적 서사와 연출력으로 주목



영화 ‘체화’의 한 장면.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 영화영상학과 18학번 홍승기 동문의 단편영화 ‘체화’가 세계적인 장르영화 축제인 ‘판타지아 국제영화제(Fantas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국제단편경쟁 부문에 공식 선정되며, 세계 무대에서 작품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영화 ‘체화’는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미학적 완성도를 통해 북미 최대 규모의 장르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며 이는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학생 작품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이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매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며, 판타지 · 공포 · SF 등 장르영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 3대 장르영화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는 기예르모 토로(Guillermo del Toro), 제임스 완(James Wan) 등 세계적인 감독들이 데뷔작으로 주목받은 무대로, 전 세계

신진 감독과 장르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장 류훈 교수는 “‘체화’는 기획력, 미학적 접근, 기술적 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실습 중심의 창작 교육을 통해 꾸준히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졸업생으로는 김세인 감독(11학번,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윤혜림 감독(04학번, 2024 후스턴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 등이 있으며, 이번 <체화>의 성과 역시 그 창작 계보를 잇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성연 이단사이비대책분과, ‘이단백서 발간’ 논의

오는 11월 유신진화론 세미나도 개최기로

한성연이단사이비대책 분과위원회 모임이 본교단 주관으로 지난 21일 총회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한성연 이단백서 발간의 건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미 기성에서 발간한 이단백서의 내용 중 이단판정과 해제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보완 및 첨부해 나가기로 하고 각 교단 해당 분야 전문위원 신학교수 1명 씩을 추천받아 임명하여 차기회의에 함께 참석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단별로 편집위원 1명을 각각 임명

해 편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성 이단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유신진화론 세미나를 개최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기성총회본부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앞서 드려진 예배는 본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한의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기성 한선호 목사의 기도 후 나성 김현호 목사가 출19:16~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하기와 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승식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025

제42차 전국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산상부흥성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제1주)

8.11-13 저녁 7시

8.11(월) 5시30분

8.12(화) 10시30분

8.13(수) 7시30분

장소: 성결대학교 80주년 기념관 대강당

새벽 공사

오전 공사

8.12(화)

윤호동목사

대전교구교역자부흥회총무

8.13(수)

임태진목사

영남교구교역자부흥회총무

8.12(화)

홍사진목사

주한영국대사관총무

8.13(수)

홍석영목사

전주교구교역자부흥회총무

주성민목사

성결대학교총장

주최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주관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연락 / 성결대학교 강가지병회, 안양지병회, 정로회전국연합회, 남진도회전국연합회, 여진도회전국연합회, 여흥목회연합회